



"병어리 마주 앉은 셈"

뜻: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나 정당하게 따져야 할 일이 있는데도, 무섭거나 답답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상황을 말한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침묵 · 곤경 · 답답함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ㅂㅇㄹ] [ㅁㅈ] [ㅇㅇ] [ㅅ]

웹에서 보기

